

윤동주의 명상시와 걷기의 모티프

- <寒暖計>를 중심으로 -

엄 국 현*

차 례

I. 머리말

III. 맺음말

II. <寒暖計>의 해석

I. 머리말

윤동주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명상이며, 명상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본래적 삶이 “슬픈天命”(〈쉽게씨워진詩〉)인 시인이 되는 것임을 통찰한 사실에 대해서는 『윤동주의 명상시 연구』에서¹⁾ 밝힌 바 있다. 윤동주의 초기시의 인식 방법이 공상이나 동경, 향수에 기대고 있다면, 그의 나이 21세 때인 1937년에 씌어진 시들은 명상과 관련된 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사물인식이나 시를 구상하는 방법이 성숙하게 된 것은 명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1938년 작품인 <이

* 인제대학교 교수, 한국문화와 문화전략 연구소

1) 엄국현, 『윤동주의 명상시 연구』, 『神魚語文學』 1집(신어어문학회, 2004), 183-224쪽 참조.

적>, <사랑의 전당>과 1939년의 <자화상>에서는 명상적 삶에 따른 황홀경이나 생명감, 초월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주는 어디에서 명상을 배웠던 것일까? 필자는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운동주의 <자화상>을 중심으로-」란 논문에서, “침묵과 고요함을 통해 마음의 평정에 도달하여 진정한 자기인식을 심화시키고 사물의 본질에 다가서게 하는 명상을 누구에게 배웠던 것일까. 고독한 그의 삶이 그를 사색에 잠기게 하여 자기를 분석하고 존재의 빛을 통찰하는 관조의 지혜를 지니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²⁾ 자문자답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그의 시 <한란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었다. <한란계>가 명상과 관련된 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과 이 논문에서 언급된 몇 작품을 새롭게 읽기 위해 일부를 수정한 논문인 「운동주의 명상시 연구」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란계>는 운동주의 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문법적 일탈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은 할 수 없었다.

<한란계>에 대한 연구는 우선 홍장학의 원전에 대한 연구가 있다.³⁾ 그는 육필원고와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 전집』, 정음사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등 여러 이본을 비교하고, 작품에 대한 교정과 교감, 낱말 풀이를 하고 있다. 그는 “『사진판』에 수록된 육필 시고에는 무수한 퇴고의 자취와 더불어 부단히 시도된 이기移記의 과정도 그대로 보여준다”고⁴⁾ 한 바 있으나, <한란계>의 퇴고 흔적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사진판』을 보면 <한란계> 1행의 “學校出入口”란 말을 지우고 그 대신 “짜늘한”이란 말로 바꾸어 놓고 있다. 학교 출입구라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 대신 다소 추상적이고 촉각적인 이미지를 선택하고 있다. 한

2) 엄국현,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현대문학의 심리학적 통찰』(최상윤 선생 회갑논총기념간행위원회, 2000), 179쪽.

3) 홍장학, 『정본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문학과지성사, 2004), 191-194쪽.

4) 홍장학, 같은 책, 498쪽.

관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작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는 먼저 문익환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그때가 바로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 문제로 들썩거리던 1935년이였다. 숭실중학교 학생 전원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데모를 벌이고 일본 순경과 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일이 있던 후 주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동주 형과 나는 짐을 꾸려 가지고 다시 용정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는 광명학원 중학부에 편입돼서 공부하게 되었다. 냄비에서 뛰어나려 솟불에 올라왔을 격이랄까? 이 아이러니를 읊조린 것이 그의 <한관계>라는 시다.⁵⁾

문익환은 <한관계>에서 아이러니를 찾아내고 있으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있다. 신사 참배로 학교를 옮기게 된 사건을 시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을 따름이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모가지를 비틀어 맨 한관계”가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김우창은 <한관계>에서 <자화상>에서와 비슷한 간혀 있는 자아의 이미지를 발견하면서 <한관계>의 마지막 연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가령 <한관계>의 마지막에서 운동주는 자신의 들뜬 산책을 기술하면서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의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은 놀라웁게 <자화상>의 근본 이미지에 비슷한 것이다.⁶⁾

5) 문익환, 『내가 아는 시인 운동주 형』,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권영민 편저, 문학사상사, 1997, 초판 7쇄), 27쪽.

6)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운동주 연구』(문학사상사, 1995), 164쪽.

김우창은 <한란계>에서 갇힌 자아뿐만 아니라 좁은 의식의 틀을 벗어나야겠다는 운동주의 결심을 읽기도 한다. 그는 <한란계>에서 갇힌 의식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의 대조를 보고 있는데, 이 대조를 통해 운동주는 “의식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에 대하여 부차적인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들(<자화상>, <한란계>, <길>-인용자)에서 의식과 실제의 대조는 단순히 철학적인 명제로 파악되지 아니하고 당대의 시대 상황에 대한 비유가 된다. 즉 내면적 의식의 강화는 실천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대 상황으로 하여 발생하며 그것은 단순히 좁아 든 삶의 터를 지칭할 뿐”이라고 본다.⁷⁾ 김우창은 ‘한란계’란 이미지에서 “의식의 상징”(갇혀 있는 자아의 좁은 의식)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을 읽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춘덕은 “이 시에 나타난 현실은 영하로 손가락질할 수돌네 방이며 추운 겨울로 제시된다. 이는 가혹한 식민지 현실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⁸⁾ 문익환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이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김남조와 최문자는 <한란계>가 자기 관찰, 혹은 자기 관조와 관련된 시로 본다. 먼저 김남조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란계>에선 어느덧 예리한 자기 관찰을 상당한 데까지 드러내 보인다. “대리석 기둥에 모가지를 비틀어 맨 한란계”에 그 자신을 투사하면서 과학자적인 냉철로써 자기를 대상화하고 있다. 이때 관찰되는 자기는 관찰하는 자아 앞에 놓여지며 이 경우 인격의 통일성은 배제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마음은 “유리관”에 비유되고 그 자신 “오척 육촌의 허리 가는 수은주”가 된다. 이처럼 자아의 비생명적 사물화로 인하여 자아 이미지는 차갑고 냉소적인 데에까지 다다른다. “분수 같은 냉침을 억지로 삼키기에/정력을 낭비”하는 한 폭의 회화로 그 자신이 인식되는 것이다. 시 <한란계>는 날카로운 자기 풍자의 일면을 보여줌과 아울러

7) 김우창, 같은 논문, 163-165쪽 참조.

8) 박춘덕, 「운동주 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31집(한국문학회, 2002. 10), 188쪽.

“마음은 유리관보다 맑소이다”라는 구절에 와서는 자아 긍정이라는 존재론적 용기의 근거가 제시된다. 마음의 흐름이 없을 때 자기 객관화는 분열 아닌 내적 통일성 속으로 용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의 마지막 이, “나는 아마도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봅니다”로 끝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로써 통일된 자기 결론에 도달함이라고 보겠다. 바로 이 점이 가치 창조적인 의미 방향이라 하겠으므로 하여 <한단계>는 ‘문제의 차원’, ‘존재의 차원’으로 시상의 비약을 보인다고 하겠다.⁹⁾

<한단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글이다. 한단계에서 시적 자아의 의식이나 마음을 읽는다는 점에서 김우창이나 김남조,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최문자는 동일한 독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독법 때문에 김남조는 <한단계>가 자기 풍자의 일면을 지니며 시상의 비약을 보인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최문자는 “①의(인용된 <한단계> 1연의-인용자) 시에서는 한단계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거기에 비친 자아는 동일시되어 한단계와 어울리며 시인은 유리관 수은주를 바라보며 그 맑고 투명한 수은을 통해 자신의 진실한 위치를 기늬한다.”라고 하여¹⁰⁾ <한단계>의 1연만을 대상으로 이 시가 자기성찰과 관련된 시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단계>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아이러니와 알레고리의 시, 의식과 실제의 세계의 대조를 통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시, 한단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자기성찰의 시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어느 정도로 올바른 것일까?

이 논문은 우선 운동주의 시 <한단계>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단계>가 자기 성찰의 명상시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한단계>를 비롯한 운동주의 일련의 명상시가 ‘걷기’¹¹⁾의 모티

9) 김남조, 『운동주 연구 -자아 인식의 변모 과정을 중심으로』, 『운동주 연구』, 24-26쪽.

10) 최문자,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상징적 해석』(태학사, 1999), 146쪽.

프와 관련되어 있으며, 운동주의 명상이 산책이나 순례와 관련된 걷기에
서 비롯된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한란계>
는 학교생활의 소외감을 산책과 역사적 삶의 자세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명상시로 생각되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寒暖計

싸늘한 大理石기둥에 목아지를 비틀어댄 寒暖計,
문득 드러다 볼수있는 運命한 五尺六寸의 허리기는 水銀柱,
마음은 琉璃管보다 맑소이다.

血管이單調로워 神經質인 輿論動物,
각금 噴水같은 冷춤을 억지로 삼키기에,
精力을 浪費합니다.

零下로 손구락질할 수돌네房처럼 칙은 겨울보다
해바라기가 滿潑할 八月校庭이 理想인 水銀소이다.
피끓을 그날이-

어제는 막 소낙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좋은 날세울시다.
동저골바람에 언덕으로, 숲으로 하시구려-
이렇게 가만가만 혼자서 귓속이약을 하였습니다.
나는 또 내기뿔으는사이에-

나는 아마도 眞實한世紀의 季節을뺏아.
하늘만보이는 울타리않을뒤희,
歷史같은 포시순을 직혀야 봅니다.

一九三七, 七, 一.¹²⁾

11) 레베카 솔릿에 따르면 걷기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순례의 걷기일 수
도 있고, 의도적인 문화적 행위로서 사유나 명상을 위한 산책일 수도 있다. 걷기
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노동과 무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레베카 솔릿,
『걷기의 역사』, 김정아 옮김, 민음사, 2003, 9-26쪽 참조.)

II. <寒暖計>의 해석

<한란계>는 운동주의 두 번째 원고노트인 『窓』에 실려 있으며,¹³⁾ 운동주의 명상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지닌 작품이다.

이 시의 1연에서 시적 화자는 한란계가 싸늘한 대리석 기둥에 모가지를 비틀어 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란계’는 온도를 재는 도구로서의 객관적 사물이면서 동시에 시적 화자의 간헐 의식이 투사되어 있는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란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운동주가 왜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이 시에서 찾기는 어렵다. 다만 1936년 작품인 <이런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아이들에게 하로의乾燥한學課로,
해스말간勸愈가기뜰고,
-<이런날>의 2연.

운동주는 <이런날>의 “아이들”처럼 이 당시 학과를 “건조”하며, “권태”로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운동주 평전』에 그의 광명학교 시절의 학적부가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그의 성적 순위를 보면 4학년 때는 38명 중 18위, 5학년 때는 8명 중 6위라고 되어 있다.¹⁴⁾ 광명학교

12)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사진관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민음사, 1999), 73-74쪽. 이하에서 인용되는 시의 제목과 내용은 사진관의 표기를 따르며, 쪽수는 편의상 생략한다.

13) 첫 번째 원고노트 『나의習作期的의 詩아닌詩』는 1934년 12월부터 1937년 3월까지 창작된 작품을 수록한 시고집이며, 두 번째 원고노트 『窓』은 1936년부터 1939년 9월까지 창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필 자선시집 『하늘과바람과별과詩』는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에 씌어진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사진관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 해제 9쪽 참조.)

14) 송우혜, 『운동주 평전』(푸른역사, 2004), 213쪽.

이전에 다녔던 송실학교에서는 학교 문예지 편집을 맡았다고 하는데,¹⁵⁾ 윤동주는 학과보다는 문학에 더 열중하였던 것은 아닐까. 그가 송실 편입시험에 실패한 것이나, 경도제대 입학시험에 떨어진 것은 학과보다 시 쓰기에 더 열심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윤동주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같은 해에 씌어진 <窓>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쉬는 시간마다
나는窓역으로 합니다.

—窓은 산 가르침.
—<窓>의 1, 2연.

“窓은 산 가르침”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지식보다 쉬는 시간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문학공부를 통해 조속했던 그는 쉬는 시간 창가에서 산 가르침을 얻고자 하였던 바, <한란계>의 “문득 드러다 볼 수 있는 運命”이란 표현은 그의 창가의 시선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한란계를 들여다봄으로써 한란계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데, 이것은 그의 창가의 시선, 다시 말하면 “산 가르침”이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고자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동주는 “運命”이나 “天命”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즐겨 들여다본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한란계의 수은주 “유리관보다 맑”은 것이었다. 자신의 마음과 한란계의 유리관을 비유하되, (자신의) 마음이 유리관보다 맑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윤동주가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한 점 속임 없이 투명하게 성찰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한란계의 운명을 들여다보았던 것처럼 그는 한란계의 유리관보다 맑은

15) 문익환의 증언이며, 송우혜, 『윤동주 평전』 183쪽 참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운명이나 사명을 탐색하고 통찰하였던 것이다.

한번도 손들어 보지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들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무서운시간>의 3, 4연.

운동주가 자신의 마음을 맑게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슬픈 운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사명 또한 자각할 수 있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밑으로 홀로거러가는
슬픈사람의 뒷모양이
거울속에 나타나온다.

-<참회록> 4, 5연.

<참회록>에도 걷기의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그것은 “詩人이란 슬픈天命”(〈쉽게씨워진詩〉)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고독한 시인의 자화상이 아니었던가.¹⁶⁾

16) “하늘의 명령(天命-인용자)은 긍정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일 수도 있고, 불치병이나 생사와 같이 운명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해야할 사명을 깨달음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들을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살신성인하기까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김승혜,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 도서출판 영성생활, 2002, 31쪽 및 39쪽.)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電信柱가 잉잉 울어
하나님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啓示일까.

빨리
봄이 오면
罪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解産하는 수고를 다하면

無花果 앞사귀로 부끄런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또太初의아침> 전문.

시적 화자에게 계시처럼 다가온 하느님 말씀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땀은 <쉽게씨워진詩>에서 “詩人이란 슬픈天命인줄 알면서도/한줄시를 적어볼까”라고 하였던 것처럼 시를 적는 일에서 흘리는 땀일 것이다.

<한단계> 2연은 한단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연속적 전개이다. “단조”, “억지”, “낭비”라는 말은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의 학교생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한단계> 3연에서 시적 화자는 한단계의 온도 변화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자신의 삶을 탐색한다. 그것은 “피 끓을 그날”이다. “피 끓을 그날”은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 사는 삶이다. 시적 화자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이상적이라고¹⁷⁾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름의 교정을 이상

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8월 교정을 이상적이라고 한 것은 다만 상대적인 비교일 따름이며, 그것은 추운 방보다 여름의 교정이 “피 끓을 그날”에 보다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달힌 공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3연의 탐색을 거쳐 4연에서는 1, 2연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억눌린 교정과 달리 자유롭고 여유로운 공간이 나타난다. 시적 화자는 동저고릿바람의 가벼운 옷차림으로¹⁸⁾ 교정을 벗어나 언덕과 숲에서 산책하고자 한다. 그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걷기의 모티프다. 그것은 냉침을 삼키는 것과 달리 “가만 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진실한” 것이다.

발에 터분한 것을 다 빼여 바리고
 黃昏이 湖水우로 걸어오듯이
 나도 삼분삼분 걸어 보리 잇가?

내사 이湖水가로
 부르는 이 없이
 불리워 온 것은
 참말異蹟이 외다.

오늘따라
 戀情, 自惚, 猜忌, 이것들이
 작고 金메달처럼 만져 지는구려

하나, 내 모든것을餘念없이,
 물결에 써서 보내려니
 당신은 湖面으로 나를불러내소서.

-〈異蹟〉 전문.

17) 홍장학은 ‘理想꽃소이다’를 “理想이고프다(→理想으로 삼고 싶다)의 하오체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홍장학, 『정본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 192쪽.)

18) ‘동저골바람’은 동저고릿바람으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갓을 쓰지 않은 차림새를 뜻한다.(『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717쪽.)

황혼에 호숫가를 사뿐사뿐 걷는 것은 부르는 이 없이 불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냉침을 억지로 삼키는 학교 수업과 달리 걷기는 가만가만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걷기가 가져오는 가볍고 깨끗한 삶의 순간을 시적 화자는 시의 제목처럼 ‘異蹟’이라고 말한다. 이 ‘이적’이란 말이 비록 기독교의 기적과 같은 어감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는 『마태복음』 14장의 갈릴리 호숫가의 기적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적>은 운동주의 시에서 잘못 읽히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광수가 이 시를 “이 시에서는 예수가 갈릴리 호수 위를 맨발로 걸어갔다는 기적의 내용을 빗대어 언급하고 있다”고¹⁹⁾ 한 이래, 이러한 견해가 아무런 검토 없이 여러 논문과 책에 인용되고 있다.²⁰⁾

<이적>에서 시적 화자를 부르는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시적 화자는 황혼의 호숫가를 걸으면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연정, 자혹, 시기와 같은 감상적이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감지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호면에서 씻어내고자 한다. “당신”은 시적 화자를 호숫가로 불러내어 고리타분한 현실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가볍게 한다. 이와 같은 “당신”은 시의 배경이 되어 있는 호수를 고려할 때 호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적>의 마지막 행은 “호수여 당신은 호면으로 나를 불러내소서”란 문장에서 “호수여”가 생략된 문장이며, “당신”은 호수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적>의 마지막 행은 사물을 영탄하는 돈호법에 대해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 마광수, 『운동주 연구』(정음사, 1986, 재판), 144쪽.

20) 예컨대, 신익호, 『운동주 시의 기독교 의식관』, 『문학과 종교의 만남』(한국문화사, 1996), 236-238쪽이나, 송우혜, 『운동주 평전』, 242-243쪽, 김수복, 『별의 노래』(한림원, 1995), 149-150쪽, 양왕용,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 『한국문학논총』 30집(한국문학회, 2002. 6), 452-453쪽, 박춘덕, 『운동주 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31집, 194쪽이 그러하다.

무생물, 하등동물, 정신작용 등에 대하여 招號하는 것이니, 예컨대 풍경 등을 그러할 때 부지 불각중 황홀한 경지에 도취되어 돌발적으로 고창하는 방법이다. 시 <향현> “산이여! 장차 너의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라는 것이 그 일례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이 방법의 묘리가 시의 무기력을 방지하여 활력을 얻도록 하고 강렬한 반향을 가슴 속에 메아리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기법은 일종의 의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²¹⁾

초호법(돈호법)은 풍경 등의 황홀한 경지에 도취되어 높이 부르는 방법이다. <이적>의 시적 화자가 황혼녘의 호숫가 경치에 도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적>의 마지막 행은 <향현>과 마찬가지로 돈호법이 어울리는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현>이 “산이여!” 하고 부르는 것과 달리 <이적>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다. 운동주의 시는 시적 화자의 의지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감추려 할 뿐만 아니라 시어가 상징성을 띠고 있으며,²²⁾ 비유에 있어서도 김열규의 지적처럼 관념화되는 경향이 있다.²³⁾ 운동주가 지닌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는 <이적>에서 “호수여”라는 감정적인 영탄을 생략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적>의 마지막 행은 호수라는 단일한 뜻을 지닌 원래의 구체적인 문장을 벗어나 “당신”의 의미가 다양하고 관념적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던 것은 아닐까. 기존의 논문에서 “당신”을 ‘예수’로 보았던 것은 운동주의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생략의 시적 기법과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이적>은 호숫가에서 이루어지는 명상의 황홀경을 노래하고 있다. <이적>의 시적 화자는 황혼녘 호숫가를 걸으면서 일상적인 삶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있다. 운동주가 ‘이적’이라고 부른 것은 다름 아닌 호

21) 박원식, 『수사학』(현대문학사, 1976), 433-434쪽.

22) 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 연구』, 185쪽 참조.

23) 김열규, 『운동주론』, 『국어국문학』 27호(국어국문학회, 1964), 104쪽.

숫가를 산책할 때 나타나는 명상의 효과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걷는 동안에는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편하게 눕거나 좌선으로 몸을 이완시켜야 명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 오히려 3-4배 이상 효과적이다. (중략) 창조적인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는 몸을 움직이면서 명상할 때 불쑥 튀어나온다. 철학자 칸트는 매일 빼놓지 않고 산책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칸트의 위대한 철학사상은 산책을 통한 명상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²⁴⁾

장 자크 루소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길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나의 다리와 함께 작동한다.”²⁵⁾

위의 인용문은 걷기와 명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걷기는 시적 화자가 걷기를 통해 명상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걷기명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적>의 시적 화자는 호숫가의 산책을 통해 고리타분한 삶을 떨치고 가쁜한 삶을 살고자 하며, <한란계>의 시적 화자는 언덕과 숲의 산책을 통해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의 교정을 벗어나서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 살고자 한다. 그는 피가 끓는 진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교정에 갇힌 삶을 뛰쳐나간 시적 화자는 언덕으로 숲으로 이리저리 산책을 한다. 이 산책, 다시 말하면 걷기명상을 통해 시적 화자는 일상의 무거운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진실한 세기의 계절을 따라” 사는 것이었고, 그런 진실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역사 같은 포지션”이었다. <한란계>에서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포지션”인데,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4) 하루야마 시게오, 『뇌내혁명』(반광식 역, 사람과 책, 1996, 1판 22쇄), 162-164쪽.

25) 레베카 솔릿, 『걷기의 역사』, 26쪽.

운동주가 “역사”라는 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한단계”와 비교하면서 찾아낼 수밖에 없다. 한단계가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단조롭고 신경질적인 것이라면, 역사는 울타리 안과 달리 보다 넓은 지평을 지닌 것이며, 주체적이면서 진실한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이다. 운동주에게 있어 “역사”란 변화하는 세상의 비본래적인 삶에서 진실한 삶의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반석”이나 “언덕”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가,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작고 부는데
내발이 반석우에 섰다.

강물이 작고 흐르는데
내발이 언덕우에 섰다.

-<바람이 불어> 전문.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변화의 괴로움 속에서 시적 화자는 걷고 있다. “발”은 걷기와 관련된 말이다. 고통을 없애기 위한 걷기, 그것은 변하지 않는 “반석”을 찾는 일이며, “언덕” 너머의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힘든 탐색의 여행이다. 그것은 우주의 중심을 향한 고행의 순례 여행이다.

순례는 걷기의 기초적인 유형, 즉 잡을 수 없는 것을 찾아가는 행위이다. (중략) 순례는 여행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즉 뭔가를 찾아가는 탐색,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다. 자기의 변화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순례자에게 걷기는 일이다. (중략) 그것은 여행travel의 어원인 노동travail을 연상시킨다. (중략)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서 순례는 문자 그대로 영적 여행의 수단으로 각인되어 있으며, 거의 모두가 금욕과 육신의 고통을 영혼 성숙의 수단으로 이해한다.²⁶⁾

반석이 있는 언덕으로 오르는 힘든 걷기,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탐색의 순례 여행이다. 자신의 사명이 “슬픈天命”인 시인이 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여행이다. <자화상>에서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편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드러다 봅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시적 화자의 자기성찰은 외편우물을 찾아가는 힘든 걷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길>에서 “잃어 버렸습니다./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두손이 주머니를 더듬어/길에 나아갑니다.// (중략) 내가 사는 것은, 다만/잃은것을 찾는 까닭입니다”에서 볼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찾는 영적 여행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보다 넓은 역사의 지평을 통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의 변화 많은 사건, 예컨대 학교 성적과 같은 사소한 일에 좌우되지 않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시적 자아는 학교 생활에서 오는 소외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산책을 하고자 하는데, 이는 그가 좋아하는 산책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본래적 삶을 회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의 포지션”이란 말은 자신의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뜻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의 시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본래적 삶을 회

26)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김정아 옮김, 민음사, 2003), 75-77쪽.

복하고자 하는 윤리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 삶을 살 수 있는가. 운동주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한란계>에서는 “역사의 포지션”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고, <바람이 불어>에서는 “반석”이나 “언덕” 위에 서기 위한 고행의 순례여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신의 본래적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는 무엇보다 시적 자아가 “바람”에 흔들리는 데서 오는 괴로움의 자각에 있다. “바람”이란 “강물”과 마찬가지로 변화이고 시간이며 죽음의 병을 상징한다. 운동주의 시적 자아가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말과 같다. <한란계>(1937)와 <바람이 불어>(1941. 6.2)를 거쳐 <서시>(1941. 11.20)에 이른 운동주의 시적 자아는 마침내 괴로움의 근원인 죽음 앞에 마주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거러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바람이 스치운다.

-<서시> 전문.

27) 김우창은 운동주의 시에서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한 긴장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면서, 운동주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의 자기실현, 다시 말하면 자신의 도덕적, 형이상학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며, <자화상>에 나타나는 시인의 자기혐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운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5, 158-160쪽 참조.)

“죽는 날까지”란 <서시>의 충격적인 시작 부분은 시적 자아가 죽음의 가능성을 향해 자기를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있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의 번민을 상징한다. 죽음 앞에서 번민하는 시적 자이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열어 보인다.²⁸⁾ 그것은 무엇보다 부끄러움 없는 삶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사랑해야지”의 ‘-야지’나 “걸어가야겠다”의 ‘-겠-’은 본래적 삶을 위한 시적 자아의 의지나 결단을 의미하며, 이 결단을 통해 시적 자이는 번민을 초월하여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한다.

<서시>에 나타나는 걷기의 모티프는 본래적인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는 순례의 여행이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고 사명에 대한 인식이다. <서시>의 1연에 나타나는 사랑과 사명은 불멸하는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인격적 윤리와 관련된 것이다.²⁹⁾ 이러한 인격적 윤리는 자기본성의 극진한 개발을 통하여 인간은 하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늘과 일치할 수 있다는 맹자의 신비주의와 관련된 것이며,³⁰⁾ 영원한 삶을 위해 죽음과 투쟁하는 종말론적 윤리라도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³¹⁾

28)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은 현존재로 하여금 가장 본래적인 자기존재 가능성에 회귀할 그런 계기를 준다.(김형효,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출판사, 2001, 재판 1쇄, 255쪽 참조.)

29) “소명과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격적인 윤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개념이다.”(한스 루터, 『인격과 윤리』, 안명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2000, 23쪽.) “인간의 보다 드높은 본성과 보다 드높은 사명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 내면에 인격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베르샤예프, 『노예나 자유나』, 이신 역, 도서출판 인간, 1979, 34쪽.)

30) 맹자의 하늘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하늘이며, 인간의 도덕원리는 또한 하늘의 형이상학적 원리이기도 하다. 인간이 자기본성을 다할 때 하늘과 일치할 수 있다는 맹자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馮友蘭, 『중국철학사』(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77), 114-115쪽 참조.

31) 묵시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종말론적인 윤리는 죽음과 불멸의 문제를 다루며, 인간이 종말을 위해 준비하는 영원하고 영속하며 불멸하는 선과 가치의 창조를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서시>(1941. 11. 20)의 2연은 인간의 삶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일 것이다. 별과 바람의 스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과 시간의 종합을 인간의 본질로 보는 실존적 사고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³²⁾

별과 바람의 스침이 “오늘밤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밤에도”라는 표현에는 운동주의 무한에 대한 감각이 있다. 그것은 스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것이며, 그러한 무한한 현상에 대한 감탄의 느낌과 관련된 것이다. 운동주가 <별 헤는 밤>(1941. 11. 5)에서 “가슴속에 하나 둘 색여지는 별을/이제 다 못헤는것은/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來日 밤이 남은 까닭이오”라고 하거나, <못자는 밤>(1941)에서 “하나, 둘, 셋, 네/...../밤은/맑기도 하다.”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는 것도 영원이나 무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한한 자아의 감개라고 할 수 있다. <못자는밤>의 말없음표는 무한을 상징하며, “맑기도”의 ‘-도’는 <서시>의 “바람에도”의 ‘-도’나 “오늘밤에도”의 ‘-도’와 마찬가지로 무한에 대한 감탄과 탄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한에 대한 감각은 감탄뿐만 아니라 탄식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탄식은 갈등의 감정과 연결된다. 운동주 시에 흔히 나타나는 갈등은 무한자인 ‘하늘’과 유한한 자아인 ‘나’와의 거리와 틈에서 온다. 그 거리와 틈, 그리고 어긋남을 그는 “부끄럼”(<서시>)이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운동주

요구한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죽음과 싸우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과업이다.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삶을 위한 죽음과의 투쟁을 의미한다. 정신적이고 이상적이며 가치 있는 요소가 영원한 인격을 형성하며, 실현된 완전한 인격은 불멸한다.(베르자예프, 『인간의 운명』, 이신 옮김, 현대사상사, 1984, 314-327쪽 참조.)

32) “실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한과 유한, 영원과 시간 사이에서 태어난, 따라서 그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며 존재하는 아이이다.’ 따라서 실존함이란 무한성과 유한성을 동시에 향하고 있으며, 그 둘을 그 자체 모순적인 단일성 속에서 일치시켜 보려는 이중 운동이다.”(F. 짐머만, 『실존철학』, 이기상 옮김, 서광사, 1977, 60쪽.)

의 문제점은 그가 천인합일의 이상적 자아를 참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다. 그는 <자화상>에서 우물에 비친 현실적 자아를 “한 사나이” 혹은 “그 사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 자아인 유한한 자아를 제3자처럼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우물에 비친 현실적 자아가 자기 자신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나이”를 미워하면서도 가여워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는 이중적 심리상태를 지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동주의 시에는 이처럼 본래적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시적 자아의 윤리적 감각이나 존재론적 통찰과 관련된 이미지나 모티프가 자주 나타난다. 그것은 <이적>처럼 “당신”이라고 불리는 호수의 부름이기도 하고, “누구”(〈무서운時間〉)라는 물음의 존재로 다가오는 불행한 운명의 부름이기도 하며, “하나님말씀”(〈또太初의아침〉)이기도 하며,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불어오는 “바람”(〈또다른故郷〉)이기도 하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는 그러나 꼭 소리의 모티프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아(〈自畫像〉)이거나, 시적 화자의 간을 뜯어먹는 “독수리”(〈肝〉), 즉 양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소리의 주인공은 호수라는 자연이기도 하고, 운명, 하느님, 바람, 양심,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진실한 삶, 다시 말하면 본래적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운동주는 이러한 이미지나 모티프를 통해 자신을 부르는 존재의 소리를 들었던 바, 존재가 부르는 소리는 ‘각성의 소리’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³³⁾ 본래적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존재의 소리를 “啓示”(〈또太初의아침〉)처럼 듣고자 하는 운동주의 무의식적 욕망은 위에서 살펴본 환유적 이미지를 통해 그의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33) “어둠을 짓는 개의 소리, 부끄러운 나를 부르는 소리, 남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는 밤비의 속살거림은 모두 나를 일깨우는 각성의 소리들이다.”(김현자, 「대립의 초극과 화해의 시학」, 『운동주 연구』, 260쪽.

때문에 그의 시는 한 작품을 이해하면 다른 작품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필자는 운동주의 시 작품이 지닌 환유적 관계라고 부른 바 있다.³⁴⁾

문법적 일탈을 보여주는 <한단계>의 마지막 행인 “역사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의 ‘한다고’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역사 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략 때문에 설명적인 문장이 지닌 산문적인 리듬은 긴장된 시적인 리듬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산책을 즐기며 산책을 통해 본래적 삶을 모색하던 운동주가 길을 관념화하고 길의 형이상학에 이르리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길이었으리라. <한단계>를 쓴 1년 뒤의 작품인 <새로운 길>을 보기로 하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길 새로운길

문들래가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길은 언제나 새로운길
오늘도……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새로운길> 전문.

34) 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 연구』, 186쪽 참조.

2행 1연의 이 시는 산책할 때의 규칙적인 걸음걸이를 연상시킨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며, 마침표도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이 시는 삶과 우주의 근본원리를 형상화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걷는 나의 길은 삶과 우주의 근본원리인 道를 말함이 아닌가. 걷기와 함께 풍경이 바뀌듯이 걸음은 늘 새로운 길로 이어진다. 특히 3연의 열거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들래”, “까치”, “아가씨”, “바람”이라는 다양한 풍경의 변화가 “피고”, “날고”, “지나고”, “일고”라는 동사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데, 생명의 약동감과 우주의 충만함이 느껴진다. 현자는 모든 타자를 그 생성의 근원에서 포착한다고 하는데,³⁵⁾ 운동주의 명상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가 이와 같은 표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책이나 걷기를 통해 도달한 삶과 우주의 형이상학, 그것은 늘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다.³⁶⁾ 하늘의 운행이 강건하여 쉬지 않음을 보고 군자는 스스로 쉬지 않고 힘쓴다는 『주역』 건괘의 말씀처럼, 늘 새로운 것이란 하늘의 도인 誠(진실함)을 말함이며, 그 하늘의 도와 하나 되기 위한 인간의 도를 말함이 아닌가.³⁷⁾ 하늘의 도는 진실함이며 사람의 도는 진

35) “현자란 자신을 약동하는 만물과 함께 하는 자를 말한다. 의도성이 없는 운행의 보편성에 자신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현자는 모든 타자를 그 생성의 근원에서 포착한다.”(프랑스와 줄리앵, 『운행과 창조』(유병태 옮김, 케이지 아카데미, 2003, 48쪽.)

36) “탕이 욕탕에 새기기를 ‘진실로 하루가 새롭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하였으며, 강고에 이르기를 ‘새로운 백성을 만들라’ 하였으며, 시에 이르기를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그 命은 새롭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군자는 그 지극한 것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大學』, 한상갑 역, 삼성출판사, 1977, 5판, 393-394쪽.)

37)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요, 성실케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니, 성실한 사람은 힘 쓰지 않아도 맞으며,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하며, 종용히 정도에 맞는 것이니, 이것은 성인이다. 성실케 하려는 사람은 착한 것을 선택하여 굳게 잡는 것이다”(『中庸』, 한상갑 역, 삼성출판사, 1977, 5판, 374쪽.)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도리요, 정성스럽게 하려 함은 사람의 도리다. 정성을 지극히 하여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고, 정성스럽지 못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孟子』, 홍인표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초판 2

실하고자 함에 있다는 유교의 근본사상을 걷기의 모티프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 <새로운길>이란 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당시 운동주는 기독교 사상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던 것이리라.³⁸⁾ 그는 자신의 사명과 관련하여 “하나님말씀이 들려온다”(〈또太初의아침〉)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詩人이란 슬픈天命”(〈쉽게씨워진詩〉)이라고 하여 유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와 유교의 교리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³⁹⁾

Ⅲ. 맺음말

운동주의 시는 명상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시를 구상하는 방법이 명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그는 이 명상을 어떻게 배운 것일까? 그의 시 <한란계>는 이런 의문을 풀

쇄, 239쪽.)

“誠은 결정적으로 자각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늘과 동일하게 되는 근거인 인간의 본질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게 만들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늘을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을 타고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뚜 웨이밍, 『뚜 웨이밍의 유학강의』(정용환 옮김, 청계, 2001, 초판 2쇄, 334쪽.)

38) 오세영은 운동주의 <서시>의 시작 부분이 『孟子』의 盡心章句와 관련이 있으며, 유교 이념과 기독교 사상은 배치되거나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 바 있다. (오세영,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251쪽.)

39) 정대위에 따르면, 중국에 와서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슈이트 교단의 서양인 동양학자들 가운데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리치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문헌들 가운데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평행되는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유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해설하였는데, 그것이 『天主實義』 등의 저작이었다. 이렇게 유교적으로 정리된 그리스도교의 문헌이 한국에 수입되어 한국교회는 발생하고 또한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였다.(정대위,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1986, 27-28쪽 및 152-153쪽 참조.)

어주는 실마리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운동주의 시 <한란계>는 억눌리고 갇힌 학교생활을 ‘한란계’라는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단조롭고 정력을 낭비할 뿐인 신경질적인 삶을 극복하기 위해 교정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자기도 모르게 “언덕으로 숲으로” 거닐고자 한다. 시적 자아는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바람직한 삶을 모색한다. 이처럼 운동주 시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본래적 삶을 탐색하는 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요소가 산책이나 걷기라 할 수 있다.

운동주의 시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본래적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윤리적 감각이다. 그는 <한란계>에서는 보다 넓은 역사적 지평을 지나야 열정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바람이 불어>에서는 “반석”이나 “언덕”이 상징하는 초월적 삶을 위해서는 고행의 순례 여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서시>에서는 사랑과 사명을 통해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인격적인 사유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윤리적인 인격시에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것이 산책이나 걷기의 모티프였다.

운동주의 시에서 산책의 모티프가 최초로 나타나는 시는 그의 나이 21세 때 쓴 <한란계>였다. 그는 이 산책을 <한란계>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것이며, <이적>에서는 “부르는 이 없이/불리워 온 것”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였다. 걷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이 걷기가 명상이나 철학적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운동주 역시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산책이나 걷기를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란계>를 쓴 1년 뒤의 작품인 <새로운길>에서는 길의 형이상학이 나타나고 있다. 산책이나 걷기를 통해 도달한 삶과 우주의 형이상학, 그것은 늘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늘 새로운 것, 그것은 하늘의 도인 誠(진실함)을 말함이며, 그 하늘의 도와 하나 되기 위한 인간의 도를 말한

다. 하늘의 도는 진실함이며 사람의 도는 진실하고자 함에 있다는 유교의 근본사상을 형상화한 것이 <새로운길>이라 할 수 있다.

운동주의 시에서 산책이나 걷기의 모티프를 지니고 있는 시편들은 <한란계>(1937)에서 시작되어 <새로운길>(1938), <이적>(1938), <자화상>(1939), <길>(1941), <서시>(1941), <바람이 불어>(1941)와 그가 고국에서 쓴 마지막 작품인 <참회록>(194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란계>가 산책을 통해 진실한 삶을 탐색하였던 것처럼, 이와 같은 시편들은 산책이나 걷기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운명과 사명, 그리고 삶과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래적 삶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운동주에게 있어 산책이나 걷기는 명상 그 자체였고,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영적인 순례와 같은 것이었다.

주제어 : 운동주, 명상시, 걷기 모티프, 영적 순례

참고문헌

- 『사진관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민음사, 1999),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민중서관, 2000), 717쪽.
- 『大學』(한상갑 역, 삼성출판사, 1977, 5판), 393-394쪽.
- 『中庸』(한상갑 역, 삼성출판사, 1977, 5판), 374쪽.
- 『孟子』(홍인표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초판 2쇄), 239쪽.
- 김수복, 『별의 노래』(한림원, 1995), 149-150쪽.
- 김승혜,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도서출판 영성생활, 2002), 31쪽 및 39쪽.
-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운동주 연구』(문학사상사, 1995), 158-165쪽.
- 김열규, 「운동주론」, 『국어국문학』 27호(국어국문학회, 1964), 104쪽.
- 김현자, 「대립의 초극과 화해의 시학」, 『운동주 연구』(문학사상사, 1995), 260쪽.
- 김형효,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청계출판사, 2001, 재판 1쇄), 255쪽.
- 마광수, 『운동주 연구』(정음사, 1986, 재판), 144쪽.
- 문익환, 「내가 아는 시인 운동주 형」,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권영민 편저, 문학사상사, 1997, 초판 7쇄), 27쪽.
- 박원식, 『수사학』(현대문학사, 1976), 433-434쪽.
- 박춘덕, 「운동주 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31집(한국문학회, 2002. 10), 188쪽 및 194쪽.
- 송우혜, 『운동주 평전』(푸른역사, 2004), 183쪽, 213쪽, 242-243쪽.
- 신익호, 「운동주 시의 기독교 의식관」, 『문학과 종교의 만남』(한국문화사, 1996), 236-238쪽.
- 양왕용,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 『한국

- 문학논총』 30집(한국문학회, 2002. 6), 452-453쪽.
- 엄국현, 「자기분석과 존재의 빛에 대한 통찰」, 『현대문학의 심리학적 통찰』(최상윤 선생 회갑 논총 기념간행위원회, 2000), 179쪽.
- 엄국현, 「운동주의 명상시 연구」, 『神魚語文學』 1집(신어어문학회, 2004), 183-224쪽.
- 오세영,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251쪽), 251쪽.
- 정대위,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한국신학연구소, 1986), 27-28쪽 및 152-153쪽.
- 최문자,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상징적 해석』(태학사, 1999), 146쪽.
- 홍장학, 『정보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문학과지성사, 2004), 191-194쪽 및 498쪽.
- 뚜 웨이밍, 『뚜 웨이밍의 유학강의』(정용환 옮김, 청계, 2001, 초판 2쇄), 334쪽.
- 馮友蘭, 『중국철학사』(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77), 114-115쪽.
- 하루야마 시게오, 『뇌내혁명』(반광식 역, 사람과 책, 1996, 1판 22쇄), 162-164쪽.
-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김정아 옮김, 민음사, 2003), 75-77쪽.
- 베르자에프, 『노예나 자유냐』(이신 역, 도서출판 인간, 1979), 34쪽.
- 베르자에프, 『인간의 운명』(이신 옮김, 현대사상사, 1984), 314-327쪽.
- 프랑스와 줄리앵, 『운행과 창조』(유병태 옮김, 케이시 아카데미, 2003), 48쪽.
- 한스 루터, 『인격과 윤리』(안명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2000), 23쪽.
- F. 짐머만, 『실존철학』(이기상 옮김, 서광사, 1977), 60쪽.

<Abstract>

The Contemplation and Walking Motif in
Yoon, Dong-joo's Poems
- Centering around the <Mercury> -

Eom, Kook-Hyeon

Yoon Dong-joo's poem The <Mercury> is difficult to read. The <Mercury> was interpreted as either a poem of historical reality which shows colonial situation or a poem of meditation.

But The <Mercury> has the image of mercury which means confined school life and the walking motif which means free and true life. I think the unintelligible passage of "position of history" implies the attitude of true life.

Walking is a universal deed of mankind. It is related with contemplation and philosophical thought. Yoon Dong-joo's poems which has the walking motif are as follows; <Mercury>(1937), <New Way>(1938), <Miracle>(1938), <Self-portrait>(1939), <Way>(1941), <Prelude>(1941), <By the Blowing of the Wind>(1941), <Confessions>(1942)which is his last poem in his homeland. These poems are contemplation poetry which quests for his true life, destiny and mission, fundamental principle of life and universe. And he wanted to recover his original life in his contemplation poetry.

The <Mercury> shows that his meditation was originated by the strolling habit of the poet. In his poems the walking motif was a way of quest, a way of spiritual journey for the becoming of the himself.

Key Words : contemplation poetry, mercury, walking motif, way of quest, way of spiritual journey, position of a history